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민규 전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중국의 세계 첫 원숭이 복제 성공의 의미

충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필자가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원숭이 복제에 성공한 연구 주체가 중국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바이오 굴기'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R&D 지원은 물론 산업화에도 한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 신약 임상 지원 건수가 이미 한국을 앞지른 지 오래됐다. 바이오 분야의 예산 규모는 2015년 기준 2조 3000억 원을 웃돌았던 한국 바이오 R&D 예산에 비해 중국은 2009년 2조 원을 넘어섰고 2012년에 5조 원에 육박했다. 외국 바이오·제약사의 R&D센터를 적극 유치하는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움직임은 기만하다. 로슈, 화이자, 노바티스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연구센터를 중국 내에 유치하고 이들과 베이징대·칭화대 간 공동연구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에 힘입어 관련 해외 유학파들의 귀국 움직임과 기업 활동도 활발하다. 지난 6년간 귀국한 200만 명의 해외 유학파 가운데 25만 명은 생명공학 분야 인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 세계에서 실시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관련 임상시험은 모두 10건으로 이 중 9건이 중국에서 진행됐다. 미 펜실베이니아대 유전자 가위 연구팀이 이루어지는 질병 연구나 신약 개발은 한

가위 분야에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 영향으로 미국은 유전자 가위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중국에 넘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각종 규제 탓에 연구 시험에 제동이 걸리며 뒤처지고 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현재 3세대까지 개발되면서 DNA 교정이 더욱 용이해졌고 인간을 비롯한 동물뿐 아니라 식물에도 적용 가능해 질병이나 병충해에 강한 동식물의 육성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법에 의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연구의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디다. 또한 유전자 가위에 앞서 한국이 독보적 기술력을 자랑했던 줄기세포 분야에서도 중국에 역전당한 지 오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줄기세포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신규 임상연구 건수는 2014년 각각 5건으로 동일했지만 2015년 중국이 11건으로 한국(10건)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중국 8건, 한국 5건으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자칫하면 우리는 선진국의 연구 결과만 좇아가는 행국이 될 수 있어 규제의 완화와 R&D지원의 확대가 절실하다. 향후 국민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은 바이오 분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은 가시적인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까지 한결같이 바이오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서는 바이오산업이 시장 친화적이지 못하고 창업 등에 대한 혁신적 노력이 부족했으며, 실패 확률이 높은 분야의 투자 의지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연구자가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SCI)급 학술지 발표 경쟁력이 세계 11위이며, 특허경쟁력이 세계 9위라 할지라도 세계적인 평가기관들은 한국의 바이오 분야 투자가 현실이 빈약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많은 연구자와 창업자들의 부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보다는 한국의 성장동력이 바이오 분야임을 정부나 투자기관에서 제대로 인식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욱 크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바이오 헬스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연구 개발 인프라 조성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 산업이 중요시하는 원천 기술 확보와 R&D 과정에서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고위험·고수익 사업 특성을 정부나 민간이 잘 이해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가 과감히 이루어지길 연구자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소망해 본다.

종교칼럼

올림픽을 하는 이유



장형규 원불교 사무국장

올림픽 개최권을 박탈당했고, 1944년 이탈리아 동계 올림픽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취소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베르탱이 말한 스포츠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말인 것 같다. 그 예로 1971년 갈등 관계에 있던 미국과 중국이 탁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미국 선수단이 중국을 방문해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됐다. 닉슨 대통령과 모택동 주석이 만나 양국 간 수교까지 이르게 한 '핑퐁 외교'가 대표적인 사례다. 1988년 서울 올림픽도 스포츠 외교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 대회이다. 당시 소련과 미국의 동서 냉전 체제가 지속되던 분위기에서 서구권과 동구권이 모두 참여한 88 서울 올림픽을 통해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진영의 동서 갈등이 타파되고 전 세계적으로 냉전을 넘어선 평화와 화합의 장을 열게 된 계기가 됐다. 또 하나 우리는 세계의 역사 속에 기록될 올림픽을 기다리고 있다.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북한의 도발로 인해 전쟁 위기의 공포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며칠 전 북한의 현충일 단장이 방문을 하고, 어제는 15명의 북한 하키팀이 남북 단일팀으로 합류해 연습을 하게 된다. 또한 며칠

후 우리 선수들이 대회 연습을 위해 북한의 마식령스키장으로 연수를 떠난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평화의 메시지를 보낼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개최 기간 동안이라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자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당연한 노력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남북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 기 공동 입장에 우려한다'는 서한을 전달한 해프닝(?)은 최소한 국정 농단에 이은 또 하나의 국가 망신이 아닌가 싶다.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국가간 메달을 얼마나 따는가 하는 순위 경쟁이 아닌 올림픽 개최를 통해 세계 평화를 조급이라도 앞당기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남북한 여자 하키팀 추진으로 인해 몇 년간 함께 연습해온 여자 하키팀원들이 출전엔트리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들이 남북한 평화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앞으로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호조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올림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화합과 평화이지만, 또 하나 그 안에 선행되어야 할 덕목이 있다. 스포츠를 통해서 인간

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그 목적이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와 국가가 없지는 10명의 난민 올림픽팀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신들의 용기와 힘이 올림픽 경기를 통해 나타날 것이며, 평화와 단결에 대한 열망이 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난민 올림픽팀 출전자중에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올림픽 정신은 메달을 획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하키 단일팀은 큰 의의가 있다. 국내 여자 하키팀원들의 눈물로 말미암아 남북간 평화의 씨앗이라는 발아점이 된다던 그 역시 올림픽 정신에 부합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국내의 현재 상황만으로도 많은 현안 문제가 있다. 남북 문제만이 아니라 남북 갈등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람이 있다면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대외적으로 남북 평화가 진전되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 정착에 한 획을 그은 대회가 되길 기원한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적폐가 청산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 물론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신뢰를 회복하는 행복한 공동체 사회가 펼쳐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기고

세계의 창 광주, 문화 거버넌스로



강신기 빛고을미래포럼 공동대표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시 조성사업을 확대했다. 그 덕분(?)에 개관 2주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하게 내놓을 만한 게 없다. 이제 지금 아니면 더 이상의 시기와 기회는 없다. 지금이야야 한다. 그제 문화 도시 광주의 미션이고 과제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광주시 동구에 위치해 있다. 아시아 문화전당의 활성화는 좁게는 광주 동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나아가선 광주를 변화 발전시키는 일이다. 광주에 갇히지 않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견인해나가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아시아의 문화를 빛나게 해야 한다.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 안으로는 지역을 보살피며 밖으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그렇게 동구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향해야 한다. 광주 전역으로, 대한민국으로, 아시아로, 세계로 뚫쪽 펼쳐져야 한다. 그 기반을 이제 광주시와 동구가 똑부러지게 다져야 할 때다. 십수 년 전 우리는 광주가 문화가 밝아

되는 세상의 시작점이 될거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 꿈꾸던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다. 혹자들은 말하곤 한다. 문화가 어떻게 밝아 되느냐고. 그럴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어쩌면 문화가 밝아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화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다. 그걸 역시 문화가 밝아 되는 것만큼이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가 밝아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일단 문화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나아가 문화가 밝아 되는 날을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광주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경제만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아니다. 경제 못지않게 문화와 예술이 미래 발전의 동력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문화로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세상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때가 되었다. 시실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이를 어떻게 문

화 에너지화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지역의 다른 공간으로 뿜어내고 세계로 발산시켜 내는구나. 이것은 문화 전문가, 예술가, 그리고 문화 행정인만의 일이 아니다. 문화 거버넌스, 즉 문화 시민의 역할이 크다. 광주 사람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정부 역시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단군 이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문화 국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문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화 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에도, 지자체에도 요구하고 문화 행결과 문화 기획자, 예술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부여해야 한다. 문화 거버넌스만이 아시아 문화전당을 활성화시키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완결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본다. 문화 시민이 몸처야 한다.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후 3년차에 접어들다. 강 건너 불보개식은 더 이상 안 된다.

社說

5·18 특조위 최선 다해 '진실의 상자' 열어야

5·18 광주민중항쟁 38주년을 맞아 2018년은 그 어느 시기보다 5월의 진상 규명에 다가가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일단 2주 뒤에 활동을 마치는 5·18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계엄군의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의혹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암매장 발굴을 연중 사업으로 채택했다. 특조위는 다음달 10일 활동을 마치고, 이에 앞서 8일 종합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특조위는 미공개 자료 분석과 관련자 면담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과는 별개로 특조위가 그동안 새로운 진실들을 밝혀내 5·18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소기의 성과라 하겠다. 특조위는 전두환 정권이 5·18 유족들을 분열시키고 5월 항쟁을 폭동으로 몰기 위해 벌였던 '광주사태 1주년 대비 예방정보활동 결과' 등을 밝혀냈으

며, '80위위원회'와 '511분석반'을 통해 해 정부 차원에서 5·18 왜곡 활동을 펼친 사실도 규명했다. 다만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은 관련 증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올해 기념사업 방향을 '진상규명'으로 정하고, 지난해에 이어 암매장 발굴을 연중 이어가기로 했다. 암매장 발굴은 지난해 11월 암매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목격했다는 다양한 증언을 토대로 진행했으나 별다른 실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올해는 2월 말부터 광주교도소 북쪽 테니스장을 시작으로 발굴 조사가 착수한다. 5·18특조위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진실의 상자'를 열어야 할 것이다.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도 올해 암매장 발굴은 물론 5·18정선의 헌법 전문 수록,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기일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강진군 전체 중학생이 해외 나가기 된 사연

강진군 전체 9개 중학교 2학년 학생 전원이 해외 역사 문화 탐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이는 교육청도 아닌 지자체의 과감한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남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자체 지원으로 특정 학년 전체 학생이 해외 수학여행에 나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군 단위의 학생들의 경우 사실상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강진군은 올해 전남 지역 최초로 9개 중학교 2학년 학생 247명 전원을 대상으로 '2018 글로벌 인제 해외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전남도와도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아닌 군 단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군은 지난 4월 관내 9개 중학교 교장과 학부모 등을 초청해 해당 프로그램

에 대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어제 2차 간담회를 열어 세부 행사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군은 우선 올해 해외 역사 문화 탐방 지원비로 군비 1억8000만 원을 투입, 학생 1명당 소요 경비 70%(학생 지원 30%)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한해선 연수 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강진군은 오는 5월~6월께 3~4일 일정으로 5월에 걸쳐 중국 상하이로 떠나는 해외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견학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현장 등이다. 우리는 강진군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해외 문화 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지역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강진군의 과감한 예산 지원이 다른 자치단체의 '롤 모델'이 되어 더욱 확산됐으면 한다.

無等鼓

스포츠에서 남북 단일팀은 1991년 일 본 치바에서 열린 탁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처음 구성됐다. 한국의 현정화·홍차욱, 북한의 리분희·유순복 네 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를 유니폼에 새겼다. 처음에는 서로가 팀을 이룬다는 결반 아이들이 쉽지가 않았다. 실력 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팀워크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었다. 또 다른 냉전이 흐르던 훈련 시간. 하지만 선수들은 어느새 마음을 열고 친해졌다. 결국 이들은 중국과의 단체전 결승에서 무적 중국을 꺾고 우승했다. 시상대 한가운데에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전 세계에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두 번째 단일팀은 그 해 포르투갈에서 열린 U-20 축구 월드컵이었다. 엔트리 총 18명 중 한국에서 10명, 북한에서 8명이 선발됐다. 단일팀 코리아는 1차전에서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8강까지 진출했다. 우여곡절 끝에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세 번째 남북 단일팀이 탄생했다. 27년 만이다. 남북의 이해와 IOC의 평화 올림픽 구상이 맞아 떨어져 이루어진 단일팀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무엇보다 선수들과 국민을 설득해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아당에서 제기하는 괴담 논란은 수긍하기 어렵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도 지금의 한나라당인 새누리당을 유니폼에 새겼다. 두 후보도 대표 때 합당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는 새누리당 주도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는 경우에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반도는 전쟁 위기설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이제 남북은 선수사상대 한가운데에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전 세계에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두 번째 단일팀은 그 해 포르투갈에서 열린 U-20 축구 월드컵이었다. 엔트리 총 18명 중 한국에서 10명, 북한에서 8명이 선발됐다. 단일팀 코리아는 1차전에서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8강까지 진출했다. 우여곡절 끝에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세 번째 남북 단일팀이 탄생했다. 27년 만이다. 남북의 이해와 IOC의 평화 올림픽 구상이 맞아 떨어져 이루어진 단일팀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남북 단일팀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6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